

2020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05.29. (금) 14:00~15: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9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이도희, 송미경
 - 나. 직원대표 :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황선진
 - 라. 동 문 : 박희옥
 - 마. 외 부 : 장유식(부의장), 손인웅
4. 불참자 : 조정환(교원), 이계원(직원), 신동인(학생), 최형심(동문)
5. 보고 안건 : 타 대학 발전기금 규모 및 모금활동 비교 자료
6. 자문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7. 심의 안건 :
 - 1)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 3) 미래교육단 직제 개편(안)

1. 보고 안건

경영기획팀장이 타 대학 발전기금 규모 및 모금활동 비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다.

- 우리학교의 기부금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 법인의 기부금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가.
- 서울·경기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3년 평균 운영 수입 대비 평균 기부금 비율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우리학교보다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규모가 큰 대학은 기부금 수입이 크다. 또한, 타 대학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금 활동 조직에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 조직을 체계화하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부금 수입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전문 모금 컨설턴트 영입 등의 인력 충원이나 조직 정비 필요하나, 현재 학교의 재정 및 인력 운영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기부금 담당 부서의 확대 조직 편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인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 법인의 경우, 2019학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기부금 수입이 예산 책정액보다 증가하였으며, 이후 법인이 학교로 전출한 금액도 예산 책정액보다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019학년도에는 법인이 정의사랑 1만명 후원자 캠페인 등 각종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법인 운영에 따른 필수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학교로 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로 보내는 법인 전출금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 기부금 수입 중 학부 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의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가. 타 학교의 경우, 최고위과정을 위한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의 졸업생이 기부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학교도 대학원 졸업생에게 기부금에 대한 홍보나 권유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 우리학교 대학원은 규모가 작은 편이며, 재적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 중이다. 기부금 수입 중 기부자 구성원 현황은 대외협력팀에서 발전기금 모금보고서를 통해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기부금을 홍보하고 권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유관부서에 전달하겠다.
- 우리학교 기부금 수입도 증가 추세인가.
- 기부금 수입은 해마다 소폭으로 하향 추세이다. 타 대학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자문 안전

경영기획팀장이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소속 교원은 어떻게 되는가.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소속 교원은 유사전공 학과에서 소속학과를 변경하는 교원 2명, 현 소속학과와의 겸임의사를 밝힌 교원 1명, 신임교원 2명 총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신임교원은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에 각각 1명씩 충원할 계획이다.

3. 심의 안전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과 체육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스포츠운동과학과)에 따른 재적생 경과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재적생 경과조치 조항 신설에 있어서 기존에도 재적생은 입학한 학과로 졸업하고, 변경된 학과 명칭은 명칭 변경 이후 입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재적생 반영 여부는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전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구성원으로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을 추가하는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심의 안건 - 미래교육단 직제 개편(안)

경영기획팀장이 미래교육단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미래교육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향후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평생교육에 집중할 계획인가.

- 미래교육단은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ICT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에 총 수입에 외국어교육원과 ICT교육원의 수입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후 외국어교육원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기초교육원 산하로 이동하였고, ICT교육원이 교내 교과목 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수입이 하락하는 구조를 띄게 된 것이다.

평생교육원의 수입구조 하락세에 대비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외부 프로젝트 등도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할 계획으로, 추후 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을 받는 구조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번에 평생교육 담당하는 교원으로 외부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다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교수를 신규로 채용한 것도 향후 평생교육과 외부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현재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조직의 명칭은 교육부 지침과 사회적 요구로 보아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학교가 평생교육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모호한 명칭으로 인한 학습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 미래교육단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업무량은 감소하는가. 소속 인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가.

- 보육교사교육원의 폐지로 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의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인력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미래교육단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0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차기 회의 일정

○ 교양대학 신설(안) 심의를 위하여 7월 초 또는 7월 중순에 차기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장이 15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5월 29일

의 장 주 창 윤

(서명)

부 의 장 장 유 식

(서명)

평 의 원 성 혜 경

(서명)

평 의 원 이 도 희

(서명)

평 의 원 송 미 경

(서명)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평 의 원 황 선 진

(서명)

평 의 원 박 희 옥

(서명)

평 의 원 손 인 응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